

제282회(정례회) 제1차본회의
2009년 7월 10일(금)

심 사 보 고 서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09. 7. 10.
건설문화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7월 7일
- 회부일자 : 2009년 7월 8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 (2009. 7.10)상정, 제안설명, 질의·토론, 심사의결(의견제시)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발전국장 박범수)

1. 제안이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및 구역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 국회 행안위-961(2009.7.2)호와 관련,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

2.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북도,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III.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IV. 토론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의견제시

- 의견서 : 별첨

VI.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의견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충청북도의회 의견서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함

<의견> : 찬성

○ 세종시 특별법을 입안할 당시부터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며 기존의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6월 제출하였고 2009년 2월 26일 성명서 발표와 2009년 3월1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설치에 관한 의견서에도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명칭에 “찬성” 함.

2. 관할구역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연기군 잔여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의견> :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관할구역 포함 반대

○ 청원군과 청원군의회에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주변지역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견 역시 부용면과 강내면의 11개리는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함.

3. 구역변경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따른 충청남도, 충청북도,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의 구역변경 내용

<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 등에서 제외되는 지역 >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당곡리·저산리 일원,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지방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종전 충청남도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의견> : 청원군 부용·강내지역 구역변경 반대

- 관할구역내에 포함되는 의견에 반대함으로 구역변경 또한 현재대로 청원군의 관할구역으로 존치시켜야 할 것임.

2009년 7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인)